

지방은행, 대출 연체율 2배 급증 자산 건전성 비상... 허리띠 질끈

중소 대출연체율 1년새 크게 늘어
부실채권 증가에 NPL 비율도 ↑

9월 코로나 이자상환유예 종료시
대규모 연체 부실 시한폭탄 우려
충당금 확대 등 긴축경영 총력

주요 지방금융지주사가 최근 실적 방어에 성공했음에도 부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대출 연체율이 2배 이상 치솟으며 자산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방금융사들은 충당금 규모를 크게 늘리며 당분간 긴축 경영을 지속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은행)의 올 1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상승했다.

◆ 지방은행, 연체율 상승

은행별로 살펴보면 대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37%에서 올 1분기에 0.79%로 크게 뛰었다. 전북은행의 연체율도 0.43%에서 0.82%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던 지난 2022년(0.63%)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은행의 연체율 역시 0.21%에서 0.34%로 상승했다.

이와함께 지방은행들의 부실채권도 크게 늘어나면서 고정이자여신(NPL) 비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NPL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지방은행들의 부실채권은 지난해에만 1600억원 넘게 불어나면서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왼쪽부터)DGB금융·BNK금융·JB금융지주 본사.

/각사

5대 지방은행의 지난 1분기 말 기준 고정이자여신(NPL) 잔액은 86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3%(1689억원) 늘었다. 이는 고금리 상황과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기업·가계대출 상환 여력이 모두 악화된 탓이다.

문제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오는 9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조치까지 종료되면, 대출 연체 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지방 금융지주사들이 충당금을 적극 쌓으며 부실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대 지방금융지주사(BNK·DGB·JB금융)가 지난 1분기에 쌓은 충당금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에 이른다. 총 3256억원으로 전년 동기(1610억원) 대비 102.2% 늘었다.

◆ 충당금 늘려 부실 대비

올 1분기 충당금전입액은 DGB금융지주가 1104억원으로 158.5% 늘면서 가장 크게 늘었다. JB금융지주도 903억

원으로 147.4% 증가했으며 BNK금융지주는 1249억원으로 52.7% 늘었다.

최근 지방금융사들의 비용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체를 확대 우려와 수익성 악화 조짐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는 긴축 경영을 지속할 전망이다.

올 1분기 3대 지방 금융지주사의 평균 CIR(영업이익경비율)은 42.1%로 1.9%포인트(p) 개선됐다. DGB금융의 CIR이 41.6%로 6.5%p 하락했으며, JB금융은 39%에서 38%로 1%p 내려갔다. 반면 BNK금융은 44.8%에서 46.8%로 2.0%p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금융권 건전성 지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큰 지방금융지주들이 건전성 관리를 주된 과제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KB손보, 미혼한부모가정 10억 후원

보험 브리핑

코리아리재보험 창립 60주년
금융권 싱가포르 IR 행사 참석

KB손해보험이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한 후원에 나섰다.

◆ 후원금 및 '365베이비케어카드'

KB손해보험이 한부모의 날을 맞아 홀트아동복지회에 미혼한부모가정 아동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이수현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달된 기금은 미혼한부모가정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전달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긴급양육물품인 '365베이비케어카드'를 직접 포장했다. 카드에는 기저귀, 이유식, 물티슈, 장난감, 의류 등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으로 구성했다.

지난 2014년 홀트아동복지회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10년째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코리아리재보험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해외진출 의지를 표명했다.

◆ 금감원·금융사 공동 주최 투자 설명회

코리아리재보험은 싱가포르 팬퍼시픽(Pan Pacific) 호텔에서 개

가정 아동지원 후원금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이사(왼쪽)와 이수현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이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손보

최한 금융권 공동개최 해외 IR 행사인 '인베스트 K-금융 싱가포르 2023'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과 코리아리보험을 비롯한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기획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최훈 싱가포르대사와 로널드 웡(Ronald Ong) 모건스탠리 동남아시아 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동 Q&A 세션'으로 이어졌다. 본 세션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원종규 코리아리 사장은 재보험 시장 및 공동 재보험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재보험시장의 시장수급 불일치 현상 심화로 재보험 요율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함영주 "글로벌 이익 비중 40%까지 확대"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 싱가포르 IR 행사 참석
하나원큐 종합자산관리 앱 고도화
빅테크 플랫폼 제휴 고객접점 확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글로벌 이익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팬퍼시픽 호텔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사 6곳과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권 공동 싱가포르 투자 설명회(IR)'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외 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공동 Q&A 세션'에는 금융사 CEO들이 직접 패널로 참석해 투자자 등의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이 오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한국 금융회사가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의 어려움에 대한 투자자의 질문에 "현지 금융기관에 소수 지분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그룹이 보유한 인프라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



국내 금융사 CEO들이 패널로 참석해 함께 진행한 '공동 Q&A 세션'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그룹 글로벌 및 디지털 전략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나금융

명했다.

함 회장은 "이러한 전략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글로벌 이익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빅테크 회사의 본격적인 금융상품 중개시장 진출로 인해 금융 산업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금융은 대표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종합자

산관리 앱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빅테크 플랫폼과의 다양한 제휴를 통해 사용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 회장은 10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과와의 조찬 미팅을 갖고, 글로벌 경기 전망과 한국 경제, 금융 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투명하고 개방된 규제 환경, 기업 친화적인 세금 시스템, 기술 혁신을 위한 풍부한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금융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함 회장은 "글로벌 현장 중심의 경영 확대를 위해 2021년 7월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IB·자산운용 등 핵심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하나금융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농협銀, 기보와 中 小 支 援 · 육 성 협 약

ESG 경영실천 기업 등 대상
1711억 규모 협약보증 공급

NH농협은행이 1711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 지원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복합경제위기 극복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NH농협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상호 협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30억원의 특별출연금과

10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재원으로 총 1711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상기업 ▲ESG 경영실천 기업 등이다. 보증비율상향(100%), 보증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석용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영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신한銀 "창구 출금, 얼굴로 인증하세요"

금융권 최초 얼굴 인증 서비스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생체 정보 중 얼굴을 활용한 '창구 얼굴 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창구 얼굴 출금 서비스'는 고객의 고유 생체 정보인 얼굴 인증을 통해 신분증, 통장, 카드 등 출금 매체 없이 편리하게 출금할 수 있다. 고객 생체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얼굴 인증 및 출금한도 등록은 전국 영업점 창구, 신한솔(SOL), 스마트 키오스크, 디지털 데스크에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체 정보를 활용한 ATM 이상행동 탐지 등 고객보호 활동에도 바이오 정보를 적극 활용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바이오 인증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금융권 바이오 인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